

제44회 전북도 공예품대전 개최

6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서 50명 입상작품 공개... 종이 분야 하운옥 씨 '예단함' 대상 수상

44번째를 맞이한 '전북도 공예품대전'이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해 입상작을 일반에 공개·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예품대전에는 종이, 도자 분야 등 6개 분야 93점(작품수량 438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이우라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한지문화산업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을 지난달 28일 선정했다.

대상은 종이 분야에 출품한 하운옥 씨의 '예

단함', 금상은 조방선 씨의 도자 분야 '궁중담소', 은상은 유명한 씨의 기타분야 '전통을 담다'와 김정철 씨의 종이 분야 '상투관', 동상은 변중호 씨의 금속 분야 '인연' 등 4명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이형목 씨의 금속 분야 '추억속 전래동화' 등 12명, 특선은 이경희 씨의 도자 분야 '나무' 등 10명, 입선은 김재익 씨의 금속 분야 '은가비' 등 20명이 선정됐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하운옥 씨의 '예단함'은 한지공예가 후퇴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한지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알리기 위해 지승공예, 전지공예를 접목, 여러 종류의 금지를

사용하고, 미적인 요소를 더한 작가의 의도가 높게 평가돼 대다수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각 7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특선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 각 30만원을, 입선작은 전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의 상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과 디자인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국제 전통놀이문화 네트워크 구축

유럽전통놀이 스포츠협회 ·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놀이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해 유럽전통놀이 스포츠협회,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놀이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해 유럽전통놀이 스포츠협회,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통놀이에 관한 콘텐츠 정보 제공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 전통놀이문화의 국가 간 다양성의 이해증진과 함께 세계놀이문화의 교류·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전당이 지난달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한 지역 문화 국제교류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적 교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앞으로 전통놀이가 범세계적으로 진흥하고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문학작품 읽으며 걷는 문화재 기행' 성료

혼불기념사업회 · 최명희문학관, 천주교 · 동학농민혁명 주제 전주 일대서 진행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지난달 31일 전주 일대에서 천주교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책 속 문화재를 책 밖으로 꺼내 현장에서 낭송·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문학작품 읽으며 걷는 문화재 기행'이다.

대상 작품은 김근혜의 청소년소설 '유령이 된 소년'과 최기우의 희곡 '들꽃상여'다.

전주한옥마을과 초록바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유령이 된 소년'은 1867년 초록바위 아래에서 순교한 홍봉주의 아들을 이야기의 한 축으로 삼아 치명자산, 전통성당, 풍남문, 서천교, 전주천변 천주교 순교 상징물 등 천주교 초기 신자들의 성지와 기념물이 가득 담겨 있다.

김근혜 작가는 "단 하나뿐인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천주교라는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꽃피어 열매 맺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따라 걷는 길은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가슴이 먹먹해

지면서 영혼이 깨끗이 씻기는 선연한 체험"이라고 소개했다.

희곡 '들꽃상여'는 전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를 소재로 연극을 준비하는 극단의 단원들이 한두 줄의 비슷한 행적만 남기고 산화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의 곡절과 곡절을 떠올리며 무명 농민군의 넋을 위로하는 꽃상여를 띄운다는 내용이다.

단원들은 '이름 모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2019년 125년 만에 전주에 안치된다'라는 기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이름과 한두 줄의 행적만 남긴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사연을 탐구하며 혁명의 역사를 알아 갔다.

한편 이날 기행 참가자들은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를 설치해 민·관 협치 혁명의 꿈을 실현해 나간 혁명군의 자취를 따라 전라감영과 경기전, 남부시장 등을 돌아보고 초록바위와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둘러 이름 없이 산화한 동학농민군을 위해 헌화했다.

/장은성 기자

제3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개최

무주군, 10월~10월 8일까지 작품 접수

무주군은 청소년들의 꿈을 북돋우고 자신감을 키워줄 제3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김환태 문학작품을 읽은 후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담은 시, 소설, 수필 등을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표지를 포함한 응모작품 1부를 방문 및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15 김환태문

학관 청소년문학상 담당자/063-320-5637), 또는 이메일(hyang1511@korea.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10월 8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당선작은 10월 25일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1편) 수상자에게는 상금 1백만 원이, 금상(2편)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 은상(3편)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30만 원이 수여되며 동상(5편)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 가작

(10편)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5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은 오는 11월 13일 토요일 '놀이김환태문학제 김환태평론문학상' 시상식에서 진행(김환태 문학관)될 예정이다.

한편, 놀이 김환태(1909~1944) 선생은 무주출신의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로 무주군은 그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김환태문학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문학관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놀이인사관, 그리고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 선집 등 다수의 저서와 유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